權好文의 詩歌 硏究

——閒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

金　文　基

《目　次》

Ⅰ. 序　論
Ⅱ. 삶과 文學活動
Ⅲ. 閒居十八曲의 構成과 作品世界
Ⅳ. 獨樂八曲과 詩歌觀
Ⅴ. 結　論

Ⅰ. 序　論

朝鮮朝는 지방의 中小地主에서 進出한 新興士大夫들의 改革意志에 의해 胚胎된 王朝였다. 이들 新興士大夫들은, 高麗末 佛敎가 勳舊勢力과 영합하여 極度로 타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社會와 國家를 새롭게 할 思想的 理念으로 性理學을 受容하여 革新을 推進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과정에서 「節義」 問題를 中心으로 新興士大夫들이 두 部類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儒敎를 새로운 統治理念으로 하되 高麗王朝를 그대로 存續시키자는 이른바 「忠誠派」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立脚한 새 王朝를 세우려는 「現實派」가 對立, 後者의 勝利로 끝남으로써 鮮初士大夫들은 方向을 달리하게 되었다. 鄭夢周, 李崇仁, 吉再 등 소위 節義派들은 伏誅당하거나 鄕里로 隱遁하게 되어 後日 處士的 文人의 源流가 되었고, 鄭道傳을 비롯한 改革主導勢力들은 의욕적으로 新王朝를 건설하면서 樂章의 製進 등 鮮初의 禮樂과 文物制度를 정비했는데, 이들의 現實 肯定的이고 御用的인 活動에서 官僚的 文學, 館閣文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

建國 初期의 文學은 官僚的 文學이 主流를 이루었다. 鄭道傳, 權近, 卞季良, 河崙 등이 文柄을 잡고 新王朝의 體制와 基盤을 굳히고자 노력한 결과, 性理學에 대한 素養과 관심은 없지 않았으나 純粹學問에 몰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執權體制는 確立되고 王權은 伸張되었으나 支配層의 官僚化, 貴族化 現象 및 官權을 통한 수탈 등 社

1) 李佑成은 士大夫의 生活의 兩面性으로 因해 文學 世界도 兩面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士大夫는 中央의 官僚인 同時에 地方의 農莊을 발판으로 한 地主的 官人들이었다. '中央의 官僚'인 同時에 地方의 地主인 이들 士大夫는 進하면 朝廷의 官僚로서 佐君澤民의 治績을 올리고 退하면 江湖의 處士로서 吟風弄月의 高致를 누리는 兩面의 生活世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士大夫의 生活의 兩面性은 또한 그들의 文學으로 하여금 兩面의 世界를 가지게 하였다. 經國의 文章으로 不朽의 盛事를 粧飾하는 館閣文學—官僚的 文學과 逸世의 情趣를 追求하고 閑適한 人生을 自樂하는 江湖文學(山林文學·田園文學 등이 다 동일 範疇에 屬하는 것임)—處士的 文學이 그것이다"(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成大論文集 제 9집, 1964)

會的 矛盾과 不條理가 擡頭되었고 詞章에 偏重한 결과 이에 대한 批判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15세기 후반에 기성의 집권 세력인 勳舊系의 權貴化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士林派였다. 역성혁명 반대론자들의 學統을 잇는 이들은 전통 성리학파로서 世宗의 폭넓은 인재 등용책으로 한때 중앙에 진출한 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在野的 입장을 면치 못했다. 士林계열은 때로 짧은 기간 주도적 위치에 서기도 했으나 勳戚계열로부터 네 차례의 士禍와 같은 정치적 보복을 당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士林의 公道論은 共感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學問的 성과를 크게 올리게 되었다.[2]

士林派들은 勳舊 官僚들을 상대로 詞章과 科擧制에 대해 공격을 했는데[3], 이는 詞章과 科擧制를 통한 人材 등용의 폐단을 시정하여 士林派의 이익을 옹호하고 王道政治를 실현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道學主義는 處士文學의 기본 입장이었고 추구하는 목표였다.[4]

處士文學은 處士的 生活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處士的 삶은 道學主義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處士文學은 性理學의 발달과 더불어 深化, 擴充되었다. 理氣哲學에 深醉된 處士 文人들은 모든 人事, 接物에 道를 基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王道政治를 追求하였고 文以載道의 文學觀을 표방하였다. 이들은 政治에서 이루지 못한 儒敎的 理想을 自然과의 융화를 통해 실현코자 하여 이른바 「江湖歌道」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處士 文人들은 現實 認識의 차이에 따라 세 部類로 나누어졌으니, 곧 自然에 뜻은 두면서도 現實政治에 적극 참여하여 王道政治를 이루려고 노력한 參與型 文人, 일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후, 평소 잊지 못하던 自然에 歸依한 歸去來型 文人, 出仕를 포기하고 自然에 隱居하여 內面的 省察을 통한 自己 完成을 추구한 隱求型 文人들이다. 參與型 文人, 곧 「至治主義」를 내세운 趙靜庵과 栗谷을 위시한 畿湖地方의 士林들은 自然을 동경하고 物我一體의 世界를 희구하면서도 정치에 부단히 참여하여 道의 實現을 꿈꾸며 假漁翁的 世界를 펼쳤으며, 李賢輔, 李滉같은 歸去來型 文人들은 政治 現實을 否定的으로 認識하고 때가 되면 언제나 鄕里로 돌아가 江湖自然에 묻혀 山水之樂을 누렸다. 그리고 權好文같은 隱求型文人들은 政治를 通한 道의 實現은 不可能하다고 판단하고 自然에서 觀照를 통하여 儒敎的 理想을 具現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 세 부류의 處士 文人들은 모두다 主理的 世界觀을 共通的으로 지니고 있었다.

한편, 官僚的 세계와 處士的 世界 그 어느 쪽에도 安住하지 못하고, 부당한 현실을

2) 李泰鎭, 16세기 士林의 歷史的 性格, 大東文化研究 第 13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9. 참조.

3) 栗谷은 詞章과 科擧制의 폐단에 대해 「선비들은 爲人之學에 힘을 써서 재주있는 사람은 詞章에만 전심하고 재주없는 사람은 科擧에만 힘쓴다. 六經은 祿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고 仁義는 迂遠한 길이 되었다. 文은 貫道之器가 되지 못하고 道는 經世之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士趨爲人之學 才高者 專事乎詞章 才短者 奔走乎科場 六經爲干祿之具 仁義爲迂遠之路 文不爲貫道之器 道不爲經世之用"(栗谷全書二, 雜著三 文策,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8. 三版)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조선 양반 관료 사회의 문화) Ⅱ, 文學·藝術편 참조.

겨부, 저항하는 方外人 文學이 나타나게 되었다.[5] 金時習, 徐花潭, 魚無跡, 鄭希良 같은 方外人들은 氣一元論的 世界觀에 立脚하여 現實體制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改造를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의 한문학은 館閣文學 즉 官僚文學과 處士文學, 方外人文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處士文學은 다시 參與的 文學, 歸去來的 文學, 隱求的 文學으로 나눌 수 있다.

朝鮮 前期의 漢文學 ⟨ 館閣文學
處士文學 ⟨ 參與的 文學
歸去來的 文學
隱求的 文學
方外人文學

그런데, 국문시가도 이러한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鮮初에는 鄭道傳, 權近, 安止, 權踶 등 功臣, 官僚 文人들에 의해 頌禱의 樂章이 創作되었고 世祖의 王位 찬탈 사건으로 이에 괘배한 소위 節義派에 의해 忠節의 時調가 이어졌다. 孟思誠의 江湖四時歌를 시작으로 聾岩 李賢輔의 漁父詞, 宋純의 俛仰亭歌, 退溪의 陶山十二曲, 車天路의 江村別曲, 栗谷의 高山九曲歌와 樂民歌, 松江의 諸歌辭, 權好文의 閒居十八曲과 獨樂八曲 등이 꾸준히 이어져 소위 江湖歌道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處士文學은 朝鮮 前期文學의 주축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여 이 글은 조선 전기 문학의 경향과 處士文學의 特性을 파악하기 爲한 作業의 일환으로 處士文學의 典型이라 할 수 있는 松岩 權好文의 文學 世界를 國文 詩歌를 中心으로, 松巖文集[6]을 통해 一瞥해 보고자 한다.

Ⅱ. 삶과 文學活動

權好文은 평생 出仕 한 번 해보지 않고 修身과 求道로써 一貫한 순수 處士였다. 이렇게 그의 一生이 平坦하기는 하나 母夫人[7]이 돌아간 때인 33세까지는 修學에 전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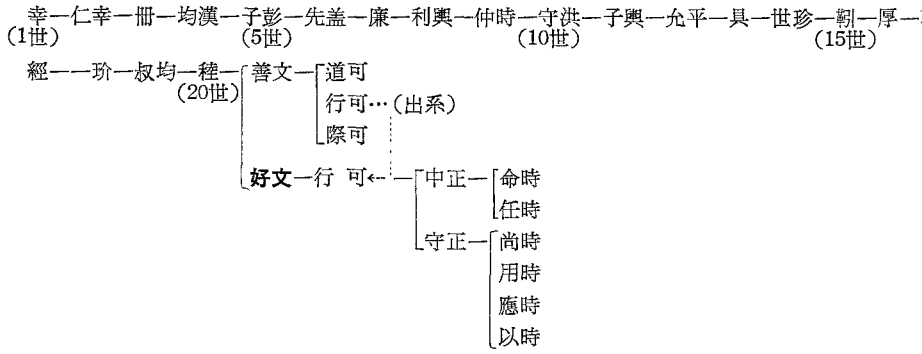
5) 林榮澤, 朝鮮 前期의 漢文學,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6) 李朝名賢集 3(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編)에 실린 松巖集을 주된 텍스트로 삼는다. 원래 松巖先生의 文集은 原集 六卷二冊, 續集 六卷二冊 및 別集(年譜 包含) 二卷一冊 等 총 五冊으로 되어 있다. 原集은 肅宗 6年(1680)에, 續集은 純祖 9年(1809)에 木版으로 간행되었고, 別集은 1956年에 石版으로 刊行되었다.
原集에는 安陵 李玄逸의 序와 世系圖가 앞머리에 실려 있고, 卷一에서 卷三까지는 詩가 실려 있으며, 卷四에는 詩와 賦, 詞, 狀, 祭文 등이 실려 있다. 卷五에는 閒居錄, 遊淸凉山錄등의 錄과 觀物堂記, 鳶魚軒記, 鏡光書堂記 등의 記, 答西涯書 등의 書 및 理學通錄跋, 說, 銘 등이 실려 있다. 卷六에는 家箴, 洞鑑 등의 雜儀輯錄과 行狀, 墓誌, 碣銘並序, 祭文, 挽詞 등의 附錄 및 柳世鳴의 跋文이 실려 있다.
續集에는 閔韶 金垓의 序文이 卷頭에 실려 있고, 卷一에서 卷五까지는 詩가, 卷六에는 節義天下之大閑, 傷虎 등의 賦와 祭柳希范文 등의 文, 終慕庵記, 松巖寒栖齋記, 城山記 등의 記文과 書, 說, 墓碣, 墓誌 및 獨樂八曲과 閒居十八曲이 실려 傳한다.
別集에는 後孫 權相圭의 序文과 松巖先生 年譜가 卷一의 앞머리에 실려 있고, 詩와 賦가 실려 있으며, 卷二에는 詩와 書, 上樑文, 祭文, 狀, 序, 記 등이 실려 있다.
7) 權好文의 母夫人은 退溪先生의 伯兄인 潛의 따님이었다. (續集 卷六, 先妣宜人李氏墓碣銘 참조)

한편 行道[8]를 위해 다소 힘을 썼고, 그 이후에는 隱求의 뜻을 굳혀 修己, 獨善己身에 몰두하고 道의 發揚을 위해 講學에도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의 삶을 前, 後期로 兩分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의 作品 世界의 바른 理解를 위해 먼저 各 時期別로 삶의 모습과 人生觀과 世界觀의 변모, 詩作을 中心으로 한 文學活動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修學期(1532~1564)

松巖 權好文(字 章仲)은 中宗 27年(嘉靖 11, 1532 A.D)에 安東 松夜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6代祖 奉翊大夫 禮儀判書 勣부터 松夜里에 世居하면서, 士林으로 발전했으니[9] 그의 祖父 叔均은 成均 進士요 父 稕은 安州 敎授였다.



權好文은 6세부터 父親으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뛰어난 재주와 奇氣가 있었고, 8세 때에는 屬文에 능하여 〈窓明知日上 山白見雲生〉이라는 詩句를 지었을 뿐 아니라 「點皙之意」를 가져 주위 사람들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었다.[10] 이러한 脫俗的인 氣質은 그후 변함없이 이어졌고, 生涯의 후반기에는 그 기질이 더욱 발휘되어 隱求의 세계에 침잠한 것 같다.

그리고, 9세 때에는 〈訪桃源〉이란 七言絶句를 읊어 벌써 桃源景에의 꿈을 보여 주었다

春三月在日之三 仙興飄飄正不堪
欲逐漁舟向何處 桃花籬落鳥喃喃[11]

---

8) 儒學者들은 修己, 修身을 通하여 治國, 平天下를 至上 目標로 하였다. 治國, 平天下하고 佐君澤民하는 길은 學問을 닦아 科擧에 合格, 任官하는 것이므로 儒者들은 이를 「行道」로 여겼다. 權好文도 母夫人이 生存한 시기에는 母夫人의 뜻에 따라 科擧에 힘을 쓴 적이 있었다. 따라서 松岩도 前半期에는 다소 「行道」를 위해 힘을 썼다고 할 수 있다.

9) 權好文의 13代祖 利興부터는 在地士族으로 本貫에 土着한 寒微한 家門이었으나 나중에는 士林派로 발전하였다.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pp.44~45, 1979)

10) 松岩先生文集 附錄, 行狀 및 別集 年譜 참조.
"松岩이 同學 儕輩로 더불어 각기 그 뜻을 말했는데, 모두들 일찌기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희망했으나 公은 홀로 「나의 뜻은 여러분들과 다르다. 새 옷을 입고 높은 다락에 올라 八窓을 열고 안석에 기대어 누워 한 점의 티끌과 먼지도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嘗與同學儕輩 各言其志 尙皆以早拾 靑紫爲期 而公獨曰 吾之志則異於諸君 著新錦衣 登百尺樓洞開八窓 凭几而臥 不使一點塵埃惹得者 乃吾之志也)

11) 松岩先生文集 卷之一, 詩.

12세 때에는 城山의 白雲庵에서 讀書에 몰두했는데, 백운암 주위의 풍치가 너무나 奇絶하여 이를 매우 아끼게 되었고 이때에 晩年의 藏修之志가 싹텄다고 할 수 있다.[12]

15세 때인 明宗 元年(1546)에는 家學을 벗어나 비로소 退溪先生 門下에 들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淸凉寺, 天淵臺, 隴雲精舍 등에서 退溪先生을 모시고 受學하게 되었고 일생동안 그의 學德을 仰慕하여 수많은 次韻詩와 贈詩를 남겼다.[13]

16세에 進士 安景仁의 딸과 婚姻하였고, 18세 10월에 父親이 卒하여 3年 廬幕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 더욱 退溪선생에게 傾倒되어 퇴계선생의 德望뿐 아니라 詩에 대해서도 敬慕하였고, 退溪는 詩로써 松岩을 격려했는데 "儒者의 氣像과 瀟灑山林之風이 있다"[14]고 했다. 20세 되던 辛亥 봄에 服闋하고, 가을에 寒棲齋가 완성되자 이곳을 중심으로 山水에 묻혀 學問에 더욱 精進하게 되었다.

특히, 22세 이후 왕성한 詩作活動을 展開했는데, 주로 金仲昷, 金方慶, 琴蘭秀, 柳仲遠, 黃俊良 等과 鶴駕山, 天燈山, 淸凉山 같은 깊은 山과 開目寺, 廣興寺, 玄妙寺, 福材寺 등 有名 山寺에서 讀書와 自然을 翫賞하며 樂山之樂을 謳歌했다. 24,5세를 전후해서는 〈次李聾岩長篇〉〈寄南正平權子胖兩君讀書林中茅屋〉〈次金淨先生韻贈柳希魯〉〈追述去冬未及淸凉勝遊之懷拜上于退溪先生座下〉〈江城題楓葉寄辛啓而求知〉〈用興字律二十韻贈金叔野〉〈說懷謹呈具上庠詩案〉등의 많은 長篇詩를 지었는데, 이 중 〈追述去冬未及…〉은 108韻이었으며 〈說懷謹呈具上庠詩案〉은 112韻이나 되었다. 이렇게 浩瀚하고 磅礴한 長詩를 짓자 退溪선생은 "詩가 너무 支蔓하고 駁雜하다"고 지적하고 "辭約하고 精當한 詩"를 쓰도록 충고 하기도 했다.

> 言必欲長故支蔓駁雜 韻必欲滿故牽强而剩衍 用事或當或否 屬對或的或贅 與其務多而駁雜 孰若辭約而精當乎 與其長驅而屢躓 孰若循軌而獨至乎[14]

특히 25세 때에 退溪 先生에게 편지를 올려 〈樂山樂水仁智之說〉에 대해 물었는데, 退溪는 답장에서 "樂山樂水 二樂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仁者와 智者의 氣象과 意思를 求해야 하고, 仁者와 智者의 氣象과 意思를 求하려면 내 마음에 돌이켜 仁智의 實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樂山樂水의 樂이 생긴다"고 했다.

> 欲知二樂之旨 當求仁智者之氣象意思 欲求仁智者之氣象意思 亦何以他求哉 反諸吾心而得其實而已苟吾心有仁智之實 充諸中而暢於外 則樂山樂水 不待切切然 求而有其樂矣[16]

---

12) "三十八年 癸卯 先生十二歲 讀書于城山白雲庵 庵在靑城山洛江上 山水奇絶……先生甚愛之 携笈肄業一歲再三 盖晩年藏修之志 已必於此時"(松岩先生別集 卷一, 年譜),
13) 退溪詩에 次韻한 것으로는 〈次退溪先生憶梅〉〈敬次退溪先生〉〈投壹韻次月〉〈夜咏梅韻〉〈次退溪先生〉〈次退溪先生明倫堂韻〉〈次退溪先生題落水臺〉〈次陶山梅韻〉〈伏次退溪先生韻〉〈訪孤山伏次退溪韻〉〈用退溪韻贈法源師〉등을 위시해 수많고, 贈詩로는 108韻의 長詩 〈追述去冬未及淸凉勝遊之懷謹拜上于退溪先生座下〉를 비롯해 〈呈退溪先生〉〈餞退溪先生赴朝〉등이 있다.
14) "弱冠橐衣於退溪門下 公才豪氣銳 汎濫百家 爲詩文浩瀁贍麗 先生喜其爲人以詩勗之……每稱公有儒者氣像 又曰權某有瀟灑山林之風"(松岩先生文集 附錄, 行狀)
15) 增補陶山全書 3, 「與權章仲」(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6) 위의 책, 「答權章仲」.

이와 같은 退溪의 충고와 가르침으로 松岩은 富華한 詞章을 止揚하고 博約한 求道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으며 樂山樂水之樂을 通하여 仁者와 智者의 氣象과 意思를 求할 수 없고 自身의 마음으로부터 仁智의 實을 求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것 같다. 이러한 깨달음은 松岩 生涯의 후반기에 隱求의 뜻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된 듯하다.

한편, 22세 여름과 24세 겨울에 紹修書院의 安珦 사당과 臨皐書院의 鄭夢周 사당을 참배하고 講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松岩은 23세 때부터 약 10年간 母夫人의 간절한 所望에 못이겨 行道를 위해 어정거리기도 했다.[17] 그는 23세 되던 해에 鄕試에 합격하여 이듬해 봄에 會試에 나아갔으나 실패하고, 27세에 京試에 또 실패한 후 크게 실망한 적도 있었다.

曾入爭場馬脫銜 六韜神策未能監
倒戈自退依殘陣 卷甲空歸臥高巖
智淺今知難敵衆 才疎始愧未超凡
…… ……

〈失利南歸聞諸親會竹舍記懷以呈〉[18]

30세 2月에 進士試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이처럼 松岩은 本意 아니게 科擧試驗에 몰두하기도 했었다.

그후 松岩은 權文海, 鄭琢, 金藥峯, 趙月川 등과 交遊하며 易, 洪範 등에 대한 讀書와 論究를 하면서 以後 수십 년간 詩創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선생 32세부터 35세까지 4년간은 詩 創作이 거의 없었는데, 母夫人이 下世한 선생 33세(1564년) 때를 전후한 이 시기는 지난 날의 반성을 통하여 人生觀과 世界觀의 재정립이 이루어진 때인 것 같다.

이와 같이 松岩 生涯의 前半期는 學問 探求와 詩作活動을 通한 修學期였고, 母夫人의 뜻에 따라 科擧 공부에 몰두했던 時期였다.

2. 隱居求道期(1565~1587)

松岩은 進士試에는 합격했으나 2차에 걸쳐 大科에 실패한 후, 4~5년간 自我反省을 거쳐 功名을 위해 行道에 연연한 것은 자기 본래의 뜻이 아님을 確認하게 되었고 山林之士로서 隱求의 뜻을 굳히게 되었다.[19]

母夫人이 돌아가자 松岩은 大科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終慕岩, 鳶魚軒을 지어 觀照와 思索을 通하여 求道에 沒入하기 시작하였다. 大科를 포기하고 隱居의 뜻을 굳히자, 退溪는 이를 "甚善·甚佳"한 일이라 칭찬하고 은거하여 藏修하면 진실로 깨달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 하여 隱求의 指針을 내리기도 했다.

17) "服旣闋 以母夫人年高 嘗一爲赴擧擢鄕 第二 中司馬而歸 然非其好也" (松岩先生文集 附錄, 行狀)
"母夫人命……赴擧雖中司馬 非其所喜"(別集 卷一, 年譜)
18) 松岩先生續集 卷一, 詩.
19) "始吾屈志場屋者 爲母在故也 今縱得一科誰爲爲榮 則安用擧業爲也" (行狀 附錄).

擧業旣不可勉强 則不如早與之判斷 從吾所好之爲樂也 作意素如此 甚善甚佳 但吾所好之中 亦有無限事業多歧路陌 不可不審擇而深加工耳 若結屋藏修耐辛忍苦 良有悟處 則宜可以有得也[20]

34세 때인 1565년에 終慕庵이 完成되었는데, 父母의 情을 平生 永慕하기 爲해 庵號를 이렇게 命名했으니[21] 그 孝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듬해 5월에 母夫人의 服을 벗고 權民俊이 찾아오자 講하였다. 이때 鳶魚軒을 짓고 天地의 道를 窮究하고 造化之原을 探索코자 觀照의 世界에 들어 갔다.[22] 36세에 夫人 安氏가 卒하여, 이듬해 處士 柳宗仁의 딸과 재혼하였다. 이 무렵 辛敬立 辛義立, 金士純, 宋汝沃, 權純, 河淵 등 諸生이 請學, 鳶魚軒에서 講學하였다.

38세 때에는 觀物堂[23]과 鏡光書堂을 지어 더욱 求志와 講學에 힘쓰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琴景休, 權忍齋, 金富弼, 金彦璣, 具景瑞, 柳應見 등과 더불어 交遊하며 近思錄, 人心道心圖說, 心經에 대해 論하고 疑義를 退溪先生에게 올렸다.

39세 때에는 退溪先生이 易簀하였다. 이후, 西涯 柳成龍, 月川 趙穆, 鶴峯 金誠一, 草澗 權文海 等 退溪의 高弟들과 交遊, 唱酬하였으며 朱子書와 周易을 많이 읽었다.

한편, 松岩은 退溪先生의 文集 刊行事業과 理學通錄의 편집[24] 등 퇴계선생의 業績을 정리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이때 靑城精舍를 지어 後學 양성을 임무로 생각, 講學에 邁進하였다.[25]

松岩은 47세 이후, 수 차에 걸쳐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7세 봄에는 集慶殿參奉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50세에 內侍敎官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權文海, 鄭琢 等이 薦擧코자 해도 모두 거절하였다.[26] 이때 獨樂八曲을 지어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뜻을 밝혔다. 특히, 栢潭 具鳳齡이 亞銓時에 先生을 遺逸로서 六品官에 천거하고자 하니 閒居錄을 지어 "遠引長往하여 王侯를 섬기지 않고 潔身傲世하여 山林에서 獨善하는 것은 비록 聖賢의 일과는 어긋나는 듯도 하나 또한 스스로 隱求의 樂을 얻는 것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科程에는 힘쓰지 않고 뜻을 오로지 山에 두어 尋山訪水하매 즐거워 하지 않는 바가 없고 자연에 묻혀 있되 平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며 벼슬하기를 거절하였다.

---

20) 退溪先生文集 內集 卷三十七, 書, 答權章仲(退溪全書二,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硏究院)
21) "終吾之身而思慕之益深 史氏曰王 哀終身慶蓼莪 傳曰舜五十而慕 自古慕父母之情 必至終身矣 故吾乃以終慕名此庵"(松岩先生續集 卷六, 終慕庵記)
22) "吾欲窮天地之道 探造化之原 推格物類 使此心照然 不昧乎輕淸者飛之 重濁者沈之之理"(松岩先生文集 卷五, 鳶魚軒記)
23) "余乃名其齋 曰觀我堂 曰執競 而退陶先生 以觀物改之 仍名焉"(松岩先生文集 卷五, 記, 觀物堂記)
24) "退陶先生嘗稽諸書史 摭述道學之有淵源者若干人 集以爲傳其所未攷者 只略記姓字 其入陸學者又別爲外編 題曰理學通錄……先生平日 未畢訂正遺稿在床 門人子弟謄寫成帙 藏于舊篋者有年矣 前年府使權公文海與好文 謀入梓廣後 乃請監司金相繼輝 而未及……今府使梁公大壯永監司之命屬好文曰擇鄒儒之稽書者 而書之校正入梓可也 好文喜而不辭 遂勘点本草誤字 及謄傳訛處 始入于剞"(松岩先生文集 卷五, 理學通錄跋)
25) "先生隱居求道 以勉進後學 爲己任"(別集 卷一, 年譜)
26) "除集慶殿參奉不就 又除內侍敎官 又不就 府使權公文海 以遺逸薦公于巡使 公貽書引梅聖俞事以絶之 槃澗鄭相公寄書請留心兼濟少作閑雲出洞之像……西涯柳文忠公 亦雅公意 尤無意薦引公"(松岩先生文集 附錄, 行狀)

"若夫遠引長往不事王侯 潔身傲世獨善山林者 雖似異於聖賢之事 亦自得其隱求之樂也 余自孟歲學懶科程 志癖溪山 尋訪水 無所不樂 棲霞雲 無處不安"[27]

53세 때 지은 閒居錄에는 이와 같은 林泉之癖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安分自足과 超克의 자세가 여실히 表出되어 있다.[28] 물론 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世界觀은 이시기에 創作한 獨樂八曲에 잘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松岩 生涯는 그가 56세에 考終하기까지 始終如一 求道로 一貫했지만, 後半期는 더욱 江湖에 묻혀 修身과 講學에 힘쓰면서 隱居求道에 전념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의 生涯의 前半期는 時俗에 마음이 다소 흔들리기는 했으나 끝내 儒者들이 理想으로 생각하던 山林之士, 隱求的인 純粹處士의 삶을 영위했었다.

이는 士禍나 黨爭과 같은 時代的인 環境과 2차에 걸친 科擧에의 실패 등의 영향도 있겠으나 松岩의 人生觀과 世界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閒居十八曲의 構成과 作品世界

松岩은 1,716首의 漢詩 外에 連時調인 閒居十八曲과 景幾體歌인 獨樂八曲을 남김으로써 嶺南歌壇의 중요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특히, 이 두 노래는 聾岩 李賢輔의 漁父歌, 退溪 李滉의 陶山十二曲을 잇는 소위 江湖歌, 處士文學으로 趙潤濟박사에 의해 일찌기 소개된 바는 있으나 학계의 관심을 모으지는 못하였다.[29] 閒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은 松岩先生續集 卷六 末尾에 獨樂八曲 序文과 함께 실려 있는데, 閒居十八曲은 실제 19首로 되어 있고 獨樂八曲은 7首로 되어 있다. 그 理由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章에서는 作品 分析을 通한 閑居十八曲의 構成과 創作時期, 作品과 生涯와의 관계, 作品名과 실제 作品 數가 다른 問題 등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閒居十八曲은 노래의 內容과 松岩의 生涯를 比較해 볼 때, 松岩 生涯의 後半期에 접어들 때에 創作된 것 같다. 時調 제 1수와 제 19수에 거듭 읊고 있는 "'十載', '十年'은 松岩이 科擧에 뜻을 두었던 10年間 즉 松岩 24세(1555년)에서 33세(1564년)까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 Ⅱ章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松岩은 본래 瀟灑한 處士之風을 타고 났으나 母夫人의 所望과 社會 貫習에 拘碍되어 24세 되는 해인 1555年 봄에 會試에 赴擧했으나 落榜하고, 27세 9月에 京試에 다시 臨했으나 下第하고 말았다. 30세 되던 1561年에 進士會試에는 二等으로 合格했으나 그후 大科의 뜻은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33세 때에 母夫人이 卒하자 大科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廬幕살이 期間에 松岩은 隱居의 뜻을 굳히고, 母夫人의 服을 벗은 35세때부터 본격적으

27) 松岩先生文集 卷五, 閒居錄.
28) "生平歆艷者 不出右列人習氣 故身世浮雲乎丘壑 虛舟乎江湖也 志尚則安分身無辰 知幾心自閒 雖居塵世上 却是出人間也"(松岩先生文集 卷五, 閒居錄)
29) 尹榮玉, 「閒居十八曲」小考, 國語國文學研究 第 16輯, 嶺南大 國語國文學科, 1974.
金倉圭, 松岩의 獨樂八曲考, 建國語文學, 第 9.10合輯, 建國大 國語國文學研究會, 1985.

로 隱居求志의 生活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때에 閒居十八曲을 지은 것 같다.

이 閒居十八曲의 構成은 過去之事를 서술한 前半部와 現在之事를 읊은 後半部로 兩分되어 있다. 前半部 즉 시조 제 1수부터 제 8수까지는 10年間 場屋에 뜻을 두고 방황하던 心的 葛藤과 隱居의 뜻을 굳힌 모습을 읊고 있고 後半部 즉 제 9수부터 제 19수(정확히 말하면 제 16수 제외)까지는 현재의 隱求之樂을 읊고 있다.

閒居十八曲{前半部 : 제 1수~제 8수—過去之事, 心的葛藤 述懷
後半部 : 제 9수~제 19수—現在之事, 隱求之樂 敍述

이러한 構成을 가진 閒居十八曲의 內容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生平애 願ᄒᆞᄂᆞ니 다만 忠孝뿐이로다
이 두일 말면 禽獸ㅣ나 다라리야
무옴애 ᄒᆞ고져 ᄒᆞ야 十載遑遑 ᄒᆞ노라

(2) 計校 이르터니 功名이 느저세라
負笈 東南ᄒᆞ야 如恐不及 ᄒᆞᄂᆞᆫ ᄠᅳᆮ을
歲月이 물흘ᄋᆞ듯 못이룰가 ᄒᆞ야라

제 1수와 제 2수는 자기의 타고난 氣質과 달리 科擧 공부를 위해 방황했던 사실과 당시의 초조하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이때는 人生觀과 世界觀이 確立되지 못했던 受學期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는 社會와 父母의 뜻에 따라 行動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년간 寸名을 구하려고 과거에 힘썼던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虛送歲月한 自歎이 다음 漢詩에도 如實히 나타나 있다.

糟粕爲文求寸名 十年勤苦不能成
虛生天地人堪笑 浪度光陰我自驚
有用魏瓢何濩落 無疵荊玉更專精
壯心此夜飛天闕 照徹邊燧一點明[30]

(3) 비록 못일워두 林泉이 됴ᄒᆞ니라
無心 魚鳥ᄂᆞᆫ 自閒閒 ᄒᆞ얏ᄂᆞ니
早晩애 世事닛고 너를 조ᄎᆞ려 ᄒᆞ노라

(4) 江湖애 노쟈 ᄒᆞ니 聖主를 ᄇᆞ리레고
聖主를 셤기쟈 ᄒᆞ니 所樂애 어긔예라
ᄒᆞ온자 歧路애 셔셔 갈ᄃᆡ 몰라 ᄒᆞ노라

(5) 어지게 이러그러 이몸이 엇디 ᄒᆞᆯ고
行道도 어렵고 隱處도 定치 아냣다
언제야 이ᄠᅳᆮ 決斷ᄒᆞ야 從我所樂 ᄒᆞ려뇨

30) 松岩先生續集 卷一 詩, 「次韻自歎」.

(6) ᄒᆞ려 ᄒᆞ려 ᄒᆞ니 이ᄅᆞᆫ 못ᄒᆞ여라
이ᄅᆞᆫ ᄒᆞ면 至樂이 잇ᄂᆞ니라
우웁다 엇그제 아니턴 일을 뉘올타 ᄒᆞ던고

(7) 말리 말리 ᄒᆞ니 이일말기 어렵다
이일 말면 一身이 閒暇ᄒᆞ다
어지게 엇그제 ᄒᆞ던 일이 다원줄 알과라

제 3수부터 제 7수까지는 "行道와 隱居"간의 갈등을 읊고 있다. 제 3수에는 자연에 묻혀 江湖之樂을 追求하고 觀照와 思惟를 통해 萬物의 理致를 窮究하고자 하는 마음의 志向을 엿볼 수 있다. 제 4수는 갈등의 구체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江湖에 노닐고 싶은 것은 松岩 自身의 素志요, 心之所樂인데 비해 聖主를 섬기고자 함은 母親의 뜻이요, 時代的인 要請이다. 仕宦에 뜻을 버리고 순수 山林 處士의 길을 처음부터 志向할 것인가, 아니면 士大夫들의 理想인 治人, 治國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心理的 葛藤이다. 제 5수는 宦路에 뜻을 두고 두 번이나 科擧에 나아갔으나 실패를 거듭한 결과 行道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고, 隱求코자 하나 확고한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해서 방황했던 당시를 述懷하고 있다 제 6수와 제 7수에서는 隱居하여 處士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吐露하고 있다. 제 6수의 '엇그제 아니턴 일'이란 處士的 삶을 의미하고, 제 7수의 '엇그제 ᄒᆞ던 일'은 科擧之業을 뜻한다. 당시 士大夫들이 얼마나 處士的 삶을 의면하고 科擧之業에 置重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8) 出ᄒᆞ면 致君澤民 處ᄒᆞ면 釣月耕雲
明哲 君子는 이ᄅᆞᆯ사 즐기ᄂᆞ니
ᄒᆞᄆᆞᆯ며 富貴危機ㅣ라 貧賤居를 ᄒᆞ오리라

제 8수는 '進하면 佐君澤民, 退하면 吟風弄月'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兩面的 世界 中에서 出仕하여 富貴를 누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로 보고, 貧賤居, 處士의 삶을 살아가리란 마음의 다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 1수부터 제 8수까지는 隱居求道의 뜻을 굳히고 隱居의 生活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心的 彷徨과 葛藤을 표현하고 있다.

現在之事, 隱求之樂을 서술하고 있는 後半部는 제 9수부터 제 19수까지인데, 이 중 제 16수는 景幾體歌 獨樂八曲의 一部分이 이 閒居十八曲에 잘못 끼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6) 行藏 有道ᄒᆞ니 ᄇᆞ리면 구태 구ᄒᆞ랴
山之南 水之北 병들고 늘근 날를
뉘라셔 懷寶迷邦ᄒᆞ니 오라말라 ᄒᆞᄂᆞᆫ뇨

이 시조에는 '行藏에는 道가 있으니 出仕를 권한들 나아갈 뜻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內容은 修己獨樂 獨善其身하는 뜻을 읊은 獨樂八曲의 內容과 相通한다. 이 시조에 쓰인 '行藏有道', '山之南', '水之北'과 같은 語句는 獨樂八曲에도 쓰였다는 점 '懷寶迷邦'이란 語句는 出仕 勸告의 뜻과 有關하다는 점, '병들고 늘근 날를'이라고 했으니 이는 老後를 암시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시조는 松岩 30代에 지었다고 보는 閒居十八曲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수차 벼슬하기를 천거받고 이를 거절한 然後인, 松岩 老後에 지은 獨樂八曲에 어울린다. 그래서, 이 제 16수 시조는 원래 獨樂八曲의 일부였던 것이 閒居十八曲에 잘못 끼여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獨樂八曲의 論議 때에 더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면, 제 16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後半部 10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9) 靑山이 碧溪臨ᄒᆞ고 溪上애 烟村이라
草堂 心事를 白鷗ᄂᆡᆫ들 제 알랴
竹窓靜夜 月明ᄒᆞᆫᄃᆡ 一張琴이 잇ᄂᆞ니라

(10) 窮達 浮雲ᄀᆞᆺ치 보야 世事 이저두고
好山 佳水의 노ᄂᆞᆫ 뜯을
猿鶴이 내벋 아니어든 어ᄂᆡ분이 아ᄅᆞ실고

제 9수 부터는 心的 葛藤이 完全 解消된 상태, 隱求之樂을 읊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뜻은 제 9수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조에 쓰인 靑山, 碧溪, 烟村, 草堂, 白鷗, 竹窓, 靜夜, 明月, 一張琴 등 모든 詩語들이 한결같이 맑고, 밝고, 평화스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自我의 지극히 平定된 觀點으로 사물을 바라본 결과이다. 世界가 맑고, 밝고, 평화롭다기 보다는 自我의 心的 狀態가 맑고, 밝고,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제 10수는 제 9수에 표현된 平定된 心的 상태와 즐거움을 말로써 굳이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松岩의 世事를 잊고 沈潛에서 오는 孤高한 즐거움을 토로하고 있다.

(11) ᄇᆞ람은 절노ᄆᆞᆰ고 ᄃᆞᆯ은 절노 ᄇᆞᆯ ᄯᅡ
竹庭 松檻애 一點塵도 업ᄉᆞ니
一張琴 萬軸書 더옥 蕭灑ᄒᆞ다

(12) 霽月이 구름뜰고 솔ᄭᅳᆺ데 ᄂᆞᆯ아올라
十分 靑光이 碧溪中에 빗ᄭᅥ거ᄂᆞᆯ
어듸인ᄂᆞᆫ 물일ᄒᆞᆫ ᄀᆞᆯ며기 나를 조차 오ᄂᆞᆫ다

(13) 날이 져물거ᄂᆞᆯ ᄂᆞ외야 ᄒᆞᆯ일업서
松關을 닫고 月下애 누어시니
世上애 ᄯᅳᆺ글 ᄆᆞᄋᆞᆷ이 一毫末도 없다

(14) 月色 溪聲 어섯겨 虛亭의 오나ᄂᆞᆯ
月色을 眼屬ᄒᆞ고 溪聲을 耳屬히
드ᄅᆞ며 보며ᄒᆞ니 一體淸明 ᄒᆞ야라

제 11수에서 제 14수까지는 제 10수에서 보인 것과 같은 이미지를 유사한 詩語를 통

하여 보여 주고 있다. 詩意의 展開라기 보다는 詩意의 反復이 이루어져 있다. 제 11수에 쓰인 부람, 돌, 竹, 松, 一張琴, 제 12수에 쓰인 霽月, 솔, 靑光, 碧溪, 갈며기, 제 13수에 쓰인 松關, 月, 제 14수에 쓰인 月色, 溪聲 等도 自我의 淸明함과 世事의 超脫에서 오는 和氣로운 心理를 나타내 주는 이미지의 詩語들이다. 모든 俗世의 物慾을 버리고 山水에 묻혀 생활하니 萬物이 淸淨하고 調和롭게 보이며, 따라서 物我一體되어 樂山樂水之樂이 솟아나고, 이러한 관조와 사색의 즐거움 속에서 萬物之理를 窮究하는 순수 處士的 삶의 모습이 눈으로 보듯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松岩 時調에 投影된 淸淨과 超脫의 이미지는 그의 漢詩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編茅爲屋隱松林 水石無塵可養襟
月入梅窓時作燭 風生松韻夜鳴琴
人間歲月三春夢 壺裡乾坤萬古心
寂寞衡門閑可樂 半生何患少知音[31]

溪月紛紛可草亭 淸光夜夜滿簾旌
尺桐橫膝多情思 彈盡高山流水聲[32]

15) 酒色 좃쟈ᄒᆞ니 騷人의 일 아니고
富貴 求차ᄒᆞ니 뜻디 아니가닉
두어라 漁牧이 되요야 寂寞濱애 놀자

이 제 15수는 閒居十八曲의 構成上 다소 벗어나긴 하나 終章에서는 漁樂으로부터 오는 自然과의 同和, 物我一體의 경지에서 더욱 나아가 自然流行을 助長하는 魚牧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意志가 돋보인다. 隱居求道의 뜻을 강조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17) 聖賢의 가신 길히 萬古애 ᄒᆞᆫ가지라
隱커나 見커나 道ㅣ 얻디 다ᄅᆞ리
一道ㅣ오 다ᄅᆞ디 아니커니 아무딘들 엇더리

(18) 漁磯예 비개거ᄂᆞᆯ 綠蓑로 ᄃᆞᆨ글사마
고기를 헤이고 낙글 ᄠᅳᆫ을 어이ᄒᆞ리
纖月이 銀鉤ㅣ 되여 碧溪心에 줌겻다

(19) 江干애 누어셔 江水 보ᄂᆞᆫ ᄠᅳᆫᄃᆞᆫ
逝者 如斯ᄒᆞ니 百歲ᄀᆞᆫᄃᆞᆯ 뎐근이료
十年前 塵世一念이 어ᄅᆞᆷ녹듯 ᄒᆞᆫ다

제 17수에서는 聖賢들이 추구하던 萬古不變의 道인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을 실천하려는 松岩의 뜻이 나타나 있다. 出世하거나 隱居하거나 간에, 결국 修身, 齊家, 治國을 통하여 明明德, 止於至善하든, 修身, 齊家만을 통하여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하든

31) 岩先生文集 卷一, 詩, 「郊居自詠」.
32) 松岩先生文集 卷一, 詩, 松岩八景, 「對月琴」.

復其初하여 道를 밝히는 것이 目的이므로 隱居求道 또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治人, 治國을 통하여 道를 펴는 것만이 道를 밝히는 길이 아님을 토로한 것이다. 제 18수는 松岩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隱居求道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형식과 格式에 구애받지 않고 '고기를 잡는 일'과 같은 世事에는 저멀리 벗어나 냇물에 잠긴 조각달을 보고 物之理를 求하고 나아가 萬物을 觀照하여 萬物之理를 窮究[33]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제 19수는 강가에서 강물의 변함없는 흐름을 보고서 萬物變轉의 無常함을 깨닫고 부질없는 俗世的 삶이 안타까울 뿐이며, 초탈한 求道的 삶이야말로 有益한 唯一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전에 科擧를 위해 노력하고 초조해했던 마음과 낙방했을 때의 傷心 등이 隱居求道 중에 있는 지금은 그 殘滓 즉, 후회와 不樂之心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10年前에 身世矛盾에서 오는 갈등의 마음이 깡그리 없어지고 현재는 求道에서 오는 즐거움과 調和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閒居十八曲은 松岩 자신의 삶의 表白이라 할 수 있으니, 제 1수부터 제 8수까지는 자신 生涯의 前半部인 修學期의 彷徨과 葛藤의 삶을, 제 9수부터 끝까지는 이 時調 창작기인 生의 後半部인 隱居求道期의 平定과 調和의 삶을 表出한 것이라 하겠다. 時調의 內容과 生涯와의 관계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時調 { 前半部 ⟶ 彷徨·葛藤 ⟵ 修學期 } 生涯
{ 後半部 ⟶ 平定·調和 ⟵ 隱求期 }

Ⅳ. 獨樂八曲과 詩歌觀

獨樂八曲은 松岩이 50세(1581년) 때에 鄭藥圃의 薦擧로 內侍敎官을 除授받고 나아가지 않는 뜻을 밝힌 노래이다.[34]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뜻을 밝히는 것이 이 노래의 창작 동기가 되겠으나, 漢詩와는 별도로 景幾體歌를 짓게 된[35] 근본 동기와 目的은 다른 데 있었다. 獨樂八曲의 근본적인 창작 동기와 目的을 그 序文의 分析을 通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獨樂八曲의 序文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6]

---

33) "閑居流覽 則水流也 山峙也 鳶飛也 魚躍也 天光雲影也 光風霽月也 飛潛動植 草木花卉之類 形形色色 各得其天 觀一物 則有一物之理 觀萬物 則有萬物之理"(松岩先生文集 卷五, 觀物堂記)
34) "十四年 辛巳 先生五十歲 除內侍敎官不就 屢登薦剡 或稱學行卓異 或稱廉靜寡慾 鄭藥圃相公 寄書請留心兼壽 先生以屬獨樂八曲謝之"(松岩先生別集 卷二, 年譜)
35) 松岩은 鄭琢등의 천거를 받고 사양하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 "記懷 二首"를 지은 바 있다
自嫌鄕里識余顔 住卜重重萬樹間
恠底世人聞姓字 薦章煩使達天關
藏名何料反沽名 屢薦朝端並衆英
縱荷聖恩身已老 白頭何補綴簪纓(松岩先生 續集 卷五)
36) 松岩先生續集 卷六, 歌辭, 「獨樂八曲並序」.

① 한가한 때에 읊조릴 만한 일이 있어 發하면 노래가 되고 가락에 맞추면 曲이 되었으며 차례로 적어서 樂府에 비기기도 했다. 비록 소리마다 節調는 없으나 자세히 들으면 가사 중에 뜻이 담겨 있고 뜻 중에는 指가 있어 듣는자들로 하여금 感興이 發하여 興歎케 한다. 佳朋이 오면 술과 함께 高唱하여 幽人의 樂이 足하니 隱者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 사이에 優劣을 가릴 수 없다.

(岩主 謀拙萬事 才短六藝 寓形世間 宅心物外 黃墨之暇 會有嘉辰之興 可詠之事 發以爲歌 調以爲曲 揮毫題次 擬爲樂府 雖嗚嗚無節 聽以察之 則詞中有意 意中有指 可使聞者 感發而興歎也 有時松月滿庭 春花撩人 佳朋適至 則酌罷芳樽 共憩岩軒 高歌若于童 手之舞足之蹈 幽人之樂足矣 考槃之歌 負薪之謠 不知孰優孰劣也)

② 隱居하여 樂志하며 노래 부르면 喜怒哀樂의 發함과 憂憾悲歎의 일이 삭여지고 저절로 俗世의 더러운 찌꺼기와 邪穢가 씻겨 없어지게 된다.

(忘懷得失 以樂其志 甘原思之貧 而陋子張之祿 臥羲皇之北窓 酣華胥之高枕 富貴何能淫 威武不能奪 凡日用 喜怒哀樂之發 憂憾悲歎之事 一於此寬焉 查滓之滌 邪穢之蕩 不期而然)

③ 옛 사람이 이르되 "노래는 평온치 못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노래 역시 내마음이 평온치 못한 데서 나왔다. 朱文公은 "그 뜻한 바를 읊고 노래불러 性情을 기른다"고 했는데 이 노래도 風朝月夕의 산란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다소 도움이 있을 것이다.

(古人云 歌多出於憂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 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而有是歌 歌之暢之而養其性 噫 松窓數般之曲 豈無少補於風朝月夕之動蕩精神乎 余是以戲有是說焉)

序文 ①에서는 獨樂八曲을 노래부르기 위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感興을 發하게 하고 興歎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獨樂八曲을 지은 근본 動機라 할 수 있다. 退溪가 陶山十二曲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俚俗의 語로서 읽을 필요가 있으므로 지었다"[37]는 것과 相通한다.

序文 ②에서는, 世事를 벗어나 隱居求志하며 노래 부르면, 喜怒哀樂의 發함과 憂憾悲歎의 일이 저절로 삭여지고 마음의 더러운 찌꺼기가 淨化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래의 効用을 지적한 것인데, 退溪가 陶山十二曲 跋文에서 "蕩滌鄙吝 感發融通"이라 지적한 効用論과는 表面的으로 상당히 가까우나 본질적인 面에서는 차이가 있다.

退溪는, 玩世不恭의 뜻이 없는, 溫柔敦厚한 뜻인 담긴 노래라야 "鄙吝한 것을 깨끗이 씻고, 감흥이 발하여 融通케 된다"[38]고 했으나 松岩은 나무꾼의 노래와 같이 모든 환경과 事物, 人事와의 交感에서 表出된 情緖는 感發, 興歎케 할 수 있고 마음의 찌꺼기와 邪穢를 씻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退溪는 노래는 世上을 敎化할 수 있는 溫柔敦厚한 뜻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고, 松岩은 노래란 感興을 發하여 興歎케 할 수 있는 것이면 足하다는 것이다.

序文 ③에서는 이 노래도 다소 不平한 心事에서 나왔다는 것과 이 노래를 읊으면 性情을 기르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不平한 心事'란 무엇을 뜻할까? 治國, 平天下를 위해 科業에 몰두했

37) "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陶山十二曲 跋).

던 젊은 날의 방황과 좌절, 그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했는지도 모른 평온치 못한 心事, 느지막하게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의 감회 등이 분명 하나의 '不平한 心事'가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功名을 추구하는 現實과 隱求에 뜻을 둔 自身과의 矛盾에서 오는 갈등이 어쩌면 하나의 '不平한 心事'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서는 이 두가지가 複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性情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隱求의 뜻을 담고 있는 이 獨樂八曲을 읊으면 '마음의 갈등' '不平한 心事'를 解消할 수 있으므로 性情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위의 序文을 통해서 볼 때, 이 獨樂八曲의 創作 動機와 目的은 쉬운 우리말로 隱求의 뜻을 노래 불러 마음의 갈등이나 '不平한 心事'를 해소, 마음의 平定을 얻으려는 데 있다고 본다.

한편, 이 序文에는 松岩의 詩歌觀이 잘 드러나 있다. '隱者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은 國文詩歌에 대한 松岩의 認識이 깊고 肯定的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는 마치 西浦 金萬重이 "閭巷間의 나무하는 아이와 물긷는 아낙네들이 소리치며 화답하는 노래가 비록 천하기는 하나 진실과 허위를 논한다면 學士나 大夫들의 소위 詩니 賦니 하는 것은 이에 견줄 수 없다"[39]고 한 것에 비길 수 있다. 松岩이 連時調 閑居十八曲과 景幾體歌 獨樂八曲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두 松岩의 국문시가에 대한 眼目과 긍정적인 評價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獨樂八曲은 松岩 自身의 隱居求志의 뜻을 읊은 것인데, 이를 章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平盛代 田野逸民　再唱
耕雲麓 釣烟江이 이밧긔 일이업다
窮通이 在天ᄒᆞ니 貧賤을 시름ᄒᆞ랴
玉堂 金馬ᄂᆞᆫ 내의願이 아니로다
泉石이 壽域이오 草屋이 春臺라
於斯臥 於斯眠 俯仰宇宙 流觀品物ᄒᆞ야
居居然 浩浩然 開襟獨酌
岸幘長嘯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2) 草屋三間 容膝裏 昻昻一閒人　再唱
琴書를 벗을삼고 松竹으로 울을ᄒᆞ니
翛翛 生事와 淡淡 襟懷에 塵念이 어드나리
時時예 落照赴淸 蘆花 岸紅ᄒᆞ고
殘烟帶風 楊柳飛 ᄒᆞ거든
一竿竹 빗기안고 忘機伴鷗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38) "其有玩世不恭之意而 少溫柔敦厚之實也"(陶山十二曲 跋)
39) "閭巷間 樵童汲婦 咿啞而相和者 雖曰鄙俚 若於眞贋 則固不可與學士大夫 所謂賦詩者 不可同日而論"(西浦漫筆).

제 1장과 제 2장에는 脫俗, 隱居之狀이 드러나 있다. 제 1장에서는 仕宦에 뜻이 없고 泉石膏肓으로 自然에 묻혀 사는 모습, 제 2장에서는 琴書와 갈매기를 벗삼은 物外閑情의 超逸之狀을 보여주고 있다.

(3) 士何事乎 尙志而已 再唱
科名 損志ᄒᆞ고 利達 害德이라
모ᄅᆞ미 黃卷中 聖賢을 피압고
言語 情神 月夜애 頤養ᄒᆞ야
一身이 正ᄒᆞ면 어디러로 못가리오
俯仰 恢恢ᄒᆞ고 往來 平平ᄒᆞ니
갈 길ᄅᆞᆯ 알오 立志를 아니ᄒᆞ랴
壁立 萬仞 磊磊 不變ᄒᆞ야
嘐嘐然 尙友千古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이 章은 立志尙古의 志向을 보여 주고 있다. 科名은 뜻을 손상시키고 利達은 德을 헤친다는 부르짖음 속에는 逆說的 意味가 없지도 않지만 科擧에의 뜻은 이미 過去之事요 바른 길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요, 立志尙古가 儒者의 當爲임을 알아 實踐하는 意志를 보여 주고 있다.

(4) 入山 恐不深 入林 恐不密
寬閒之野 寂寞之濱에 卜居를 定ᄒᆞ니
野服 黃冠이 魚鳥外 버디업다.
芳郊애 雨晴ᄒᆞ고 萬樹애 花落後에
靑藜杖 뷔집고 十里溪頭애 閒往閒來 ᄒᆞᄂᆞᆫᄃᆞᆫ
曾點氏 浴沂風雩와 程明道 傍花隨柳도 이러턴가 엇다턴고
暖日 光風이 불써니 볼거니 興滿前ᄒᆞ니
悠然會次ㅣ 與天地萬物 上下同流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여기서는 天地萬物의 觀照를 통한 求道의 모습을 읊고 있다. 魚鳥를 벗삼음으로써 天地萬物과 同流하고 있다. 새의 觀察을 통하여 輕淸한 것들의 나르는 理를 궁구하고, 고기의 觀察을 통하여 重濁한 것들의 沈潛하는 理를 구하여 天地萬物의 理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松岩은 格物致知를 통하여 萬物의 所從來를 깨달아 物我一體의 경지를 追求하는 자신의 主理的 世界觀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格物致知를 통한 求道의 모습은 그의 漢詩에도 잘 드러나 있다.

江湖形影獨低徊 世路聲華眼不開
靜究羽鱗飛躍處 源源物理有從來[40]

(5) 집은 范萊蕪의 蓬蒿ㅣ오 길은 蔣元卷의 花竹이로다
百年 浮生 이러타 엇다ᄒᆞ리

40) 松岩先生續集 卷四, 「又二絶」.

진실로 隱居 求志ᄒᆞ고 長往 不返ᄒᆞ면
軒冕이 泥塗ㅣ오 鼎鍾ㅣ 塵土ㅣ라
千磨 霜刃인들 이 ᄠᅳᆮ들 굿츠리랴
韓昌黎의 三上書ᄂᆞᆫ 내의ᄠᅳᆮ데 區區ᄒᆞ고
杜子美 三大賦ㅣ 내동내 行道ᄒᆞ랴
두어라 彼以爵 我以義 不願人之 文繡ᄒᆞ야
世間萬事 都付天命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6) 君門 深九重ᄒᆞ고 草澤 隔萬里ᄒᆞ니
十載 心事를 어이ᄒᆞ야 上達ᄒᆞ료
數封 奇策이 草ᄒᆞ얀ᄃᆡ 오래거다
致君 澤民은 내의才分 아니런가
窮經 學道를 ᄠᅳᆮ두고 이리ᄒᆞ랴
출하리 藏修丘壑 逐世 無悶ᄒᆞ야
날조ᄎᆞᆫ 번님네 뫼옵고
緣簑 山窓의 共把遺經 究終始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제 5,6章에서는 行道와 致君澤民이 결코 자신의 뜻이거나 分數가 아님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再三 거론할 만큼 갈등이 컷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生을 義로써 주장하고 順命하는 태도와 窮經學道에 專念하는 자신의 心志를 나타내고 있다.

(7) 一屛一榻 左箴右銘　再 唱
神目 如電이라 暗室을 欺心ᄒᆞ며
天聽 如雷라 私語ᄂᆡ들 妄發ᄒᆞ랴
戒愼 恐懼를 隱微間애 닛디마새
坐如尸 儼若思 終日乾乾 夕惕若 ᄒᆞᄂᆞᆫᄃᆞᆫ
尊事 天君ᄒᆞ고 攘除 外累ᄒᆞ야
百體 從令 五常 不斁ᄒᆞ야
治平 事業을 다이루려 ᄒᆞ엿더니
時也 命也인ᄃᆡ 迄無成功 歲不我與ᄒᆞ니
白水 林泉의 ᄒᆞ올일이 다시업다
우옵다 山之南 水之北애 斂藏蹤跡ᄒᆞ야
百年閒老景 긔엇다 ᄒᆞ니잇고

이 章에서는 修己獨善의 뜻과 斂藏 閒老의 모습을 읊고 있는데, 앞뒤의 文脈과 意味가 어긋나고 있다. 앞부분 즉 "坐如尸 儼若思 終日乾乾 夕惕若 ᄒᆞᄂᆞᆫᄃᆞᆫᄃᆞᆫ"까지는 隱求의 근본을 修己獨善에 두고 '愼其獨'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그 以下 部分은 '治國 平天下'라는 儒敎的 理念을 이루려 했으나 身世矛盾하여 自然에 閒居한다는 內容이다.

이와 같이 앞뒤의 內容이 相反되는 點으로 볼 때, 이 章은 다른 두 章이 뭉쳐 지금의 한 章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지막 章이 원래 두 章이던 것이 하나의 章으로 縮約되었다는 것은 章의 길이를 통해 봐서도 알 수 있다. 제 1~6章까지는 한 章이 대개 6~8행인데 비해, 이 마지막 章은 12행으로써 거의 다른 章의 2배 길이를 취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點에 留意해 볼 때, 獨樂八曲은 그 名稱과 같이 원래는 8章이었던 것이 錯簡등의 사정에 의하여 제 7장과 제 8장이 합쳐져 지금과 같은 마지막 章으로 남게 되었다고 본다. 閒居十八曲의 論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閒居十八曲의 제 16수는 獨樂八曲의 一部였을 것이고, 더욱 그 내용으로 보아 獨樂八曲 제 8章의 일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世事에는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隱求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獨樂八曲은 憂思와 葛藤을 씻고 存心養性을 위해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獨樂八曲의 形式은 景幾體歌의 定格에서 크게 벗어난 破格型으로 되어 있다. 제1,2,3章과 제 7章의 첫 행에 '再唱'이 오고 每章의 끝 행에 "~景 긔엇다 ᄒᆞ니잇고"가 온다는 특징이 있을, 뿐, 그 외에는 경기체가의 모습을 찾기 힘든다. 경기체가에 쓰이는 感歎落句 '위(偉)'도 나타나지 않고 대신 일반적인 語句가 오거나 아니면 "두어라"(제 5장), "출ᄒᆞ리"(제 6장), "우읍다"(제 7장) 등 時調에 흔히 쓰이는 感歎句가 오고 있다. 이로 보아 獨樂八曲은 時調의 영향을 다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景幾體歌가 變格型을 거쳐 破格型이 된 時期는 中宗代 이후이다. 金緅의 花田別曲, 周世鵬의 道東曲, 六賢歌, 儼然曲, 太平曲, 松岩의 獨樂八曲, 閔圭의 忠孝歌 등은 모두 破格型인데, 이들은 朝鮮朝의 文物制度가 確立된 成宗代를 지난 후에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讚揚과 頌祝을 基本屬性으로 하는 경기체가는 讚揚과 頌祝이 요구되던 조선조 初期, 특히 成宗 때까지는 그 必要性에 의해 창작이 활발했으나 中宗代 이후에는 그 필요성을 상실함으로써 창작이 급격히 줄어들고 形式이 크게 파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체가의 형식이 크게 파괴된 원인으로는 또한 歌辭文學의 영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찬양과 송축, 敎述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반면에 歌辭와 時調가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경기체가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漢字 語句가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리듬도 주로 4音步格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周世鵬이 지은 道東曲, 儼然曲, 六賢歌, 太平曲 등의 경기체가는 주로 시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松岩의 獨樂八曲은, 感歎句등은 시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歌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결국, 獨樂八曲은 경기체가로서의 몇가지 要素를 갖고는 있으나 形式面에서 볼 때 章間의 均衡이 깨어지고 리듬도 거의 4음보 연속체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행의 落句 형식이 아주 달라졌으며 內容面에서도 江湖歌辭의 영향과 詞章之習이 많은 松岩自身의 趣向[41]으로 인해 載道的인 面보다 抒情性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41) 退溪도 松岩이 文詞에 힘쓰는 것을 경계하고 道學에 精進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讀書務精義理 不務博雜以君之才 用力於文詞久矣 何難於一變至道耶"(增補退溪全書三, 「答權章仲」)

Ⅴ. 結　　論

지금까지 閒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 하여 權好文의 文學世界를 살펴 보았다. 當初에는 松岩의 漢詩도 考究의 對象으로 삼았으나 時間의 不足과 紙面關係로 부득이 제외하기로 하였다. 松岩文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1716首의 漢詩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국문시가 만을 主對象으로 松岩의 作品世界를 分析하고 松岩文學의 特徵을 찾다보니 다소 偏僻된 論議와 推論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주로 松岩의 삶과 文學活動과의 關係, 閒居十八曲의 構成과 創作時期, 作品名과 실제 作品 數가 다른 理由, 獨樂八曲의 作品分析과 錯簡 關係, 松岩의 詩歌觀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松岩은 在地 中小地主의 後裔로서 평생 出仕를 포기하고 修身과 求道로써 一貫한 순수 處士였으나 33세까지는 修學과 科擧에 힘을 썼고, 그 以後는 修己獨善으로 隱求의 삶을 살았다.

修學期에는 父親으로부터 家學을 닦다가 退溪先生에게 나아가 道學은 물론 文學까지 배웠다. 23세 때부터 약 10年 間은 母夫人의 뜻과 現實的 要求에 의해 科業에 몰두했으나 大科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母夫人이 下世한 以後 隱居의 뜻을 굳히고 觀照와 思索을 通하여 求道에 專念하였던 것이다.

閒居十八曲은 松岩이 大科의 뜻을 포기하고 隱居求志의 生活로 접어들게 된 때인 1566년(松岩 35세) 경에 지은 연시조인데, 內容으로 보아 前半部와 後半部로 大別되는 兩分構成을 취하고 있다. 前半部인 제 1~8수는 過去之事로서 心的葛藤을 述懷한 것이고, 後半部인 제 9~19수는 現在之事로서 隱求之樂을 敍述하고 있다. 이를 生涯와 관련시켜 볼 때,

時調 { 前半部 ——→ 彷徨·葛藤 ←—— 修學期 } 生涯
　　 { 後半部 ——→ 平定·調和 ←—— 隱求期 }

와 같은 有機的인 圖式化가 가능하였다.

한편, 松岩의 連時調가 名稱은 '閒居十八曲'이라 했으나 실제 작품수는 19수인데, 作品分析을 通해 본 결과, 이는 제 16수가 獨樂十八曲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獨樂八曲은 1581年(松岩 50세)에 松岩이 內侍敎官을 제수받고 사양의 뜻을 읊은 경기체가인데, 創作의 근본적인 動機는 노래부르기 위한 데 있었고, 나아가 노래를 통해 마음에 內在한 葛藤을 解消하고 性情을 기르는데 創作의 目的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獨樂八曲은 원래 8章이었던 것이 錯簡에 의하여 마지막 章이 縮約되어 現在의 제 7章으로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獨樂八曲의 序文에는 松岩의 國文詩歌에 대한 肯定的인 認識이 잘 드러나 있었으며, 松岩이 連時調와 景幾體歌를 짓게 된 것도 이러한 우리 詩歌에 대한 價値 認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以上과 같이, 松岩의 詩歌文學을 漢詩와 部分的으로 聯關시켜 一瞥해 보았으나 漢詩全體와 보다 有機的으로 關聯시켜 考究해야 當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漢詩를 中心으로 한 詳論은 後稿로 미룬다.